

# 트럼프 “이란과 협상 안 끝났다…비판론자들 말 듣지말라”

“합의 서두르지 말라” 신중 메시지

‘졸속 합의’ 우려…막판 속도조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한 비판론을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만약 내가 이란과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좋고, 적절한 합의일 것이며, 오바마(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가 한 합의처럼 이란에 막대한 현금을 주고, 핵무기 개발로 가는 선행하고, 방해없는 길을 열어준 것과는 다를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대해 “(현재 협상중인) 우리의 합의는 그것(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이란 핵합의)과 정반대이지만, 아무도 그 내용을 본 적이 없거나,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았다”며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 비판하는 패배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고 밝힌 뒤, “수년 전에 이 문제를 해결

했어야 했던 내 전임자들과 달리, 나는 나쁜 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SNS 글은 미국 언론 등에서 미국과 이란이 추진하는 양해각서(MOU) 초안 내용이 보도되고, 그에 대해 공화당 일각에서까지 이란에 대한 ‘과도한 양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보도되고 있는 MOU 초안의 골자는 일단 휴전을 60일 연장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60일 동안 이란 핵개발 저지를 핵심 의제로 협상을 벌이는 2단계 해법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이란이 역내에서 상당한 위상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애초에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등 공화당 일각에서도 비판론이 제기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협상팀에 합의를 서두르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글도 SNS에 올렸다. 결국 공화당 내부에서까지 ‘졸속 합의’를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막판 ‘속도 조절’을 하며, 좀 더 미국에 유리한 합의 도출 가능성을 타진하려 하는 상황일 수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쿼타에서 발생한 열차 폭발 사고 현장에서 보안 관계자와 구조대원들이 파손된 객차와 파괴된 차량들을 조사하고 있다. 철도 당국에 따르면 쿼타의 차만 파타크 건설목 인근에서 여객 열차를 겨냥한 폭발로 여러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여러 객차가 탈선했다. /EPA=연합뉴스

## 파키스탄서 열차 폭탄테러…29명 사망·102명 부상

분리주의 무장단체 BLA “우리 소행”

분리주의 무장단체가 활동하는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열차가 운행하던 중 선로 인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102명 넘게 다쳤다.

24일(현지시간) EFE·AP 통신과 파키스탄 매체 지오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5분께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쿼타에서 열차가 달리던 중 선로 인근에서 폭발물이 터졌다.

이후 충격으로 객차 3량이 탈선했고 이 가운데 2량이 전복되면서 화재도 발생했다.

쿼타 경찰 관계자는 EFE에 “승객 29명이 숨지고 10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선로 인근 건물 여러 채가 파손되고 도로에 주차된 차량 수십대가 심하게 찌그러진 모습이 담겼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들 가운데 20명은 위독한 상태여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AP는 열차가 지나갈 때 선로 인근에서 테러범이 차량에 실린 폭발물을 터뜨렸다고 보도했다. 무함마드 하니프 합바시 파키스탄 철도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열차를 노린 비열한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날 사건 이후 발루치스탄주 쿼타 지역에 있는 병원에는 의료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발루치스탄주에서 활동하는 분리주의 무장

단체인 발루치스탄 해방군(BLA)은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지안드 발로치 BLA 대변인은 “오늘 아침 자살 부대가 치밀하게 계획한 공격을 통해 점령군 병력을 수송하던 열차를 표적으로 삼았다”며 “BLA는 이번 작전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발루치스탄주는 각종 광물 자원이 풍부하지만 파키스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이란과도 국경을 맞댄 곳이다.

BLA를 비롯한 이 지역 반군은 파키스탄 정부와 외국 자본이 지역 자원을 착취한다면서 독립을 주장하고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 /연합뉴스

## 멕시코에 등장한 거대 비빔밥…“최애 음식”이죠

멕시코시티서 23일(현지시간) 오전 11시께 여름 햇살이 작열하는 뜨거운 멕시코시티 린드버그 광장에 현지 주민과 교민 수백명이 모였다. 이들은 사물놀이에 걸맞은 한복을 입고 뿔과리, 징, 장구, 북을 치며 광장을 도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봤다.

광장의 또 다른 한쪽에선 ‘줄넘기 챌린지’에 도전하는 성인 여성들도, 웃음을 벗고 축구공을 킥트롭하는 아들도 있었다. 그 건너편에선 아이들이 십이지신을 상징하는 동물 그림 종이에 색칠하느라 집중하고 있었다.

한국적인 것과 멕시코적인 것들, 친숙한 것과 이질적인 것들이 뒤섞여 있는 토요일 오전의 이 기묘한 풍경은 마치 여러 재료를 넣어 비벼 먹는 한국의 한 음식과 닮아 보였다. 비빔밥 말이다.

월드컵을 앞두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미 카리브협의회가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월드컵 성공 및 한반도 평화 기원 평화통일 비빔밥 행사’를 진행했다.

주최 측은 서로 다른 재료가 뒤섞여 환상적인 맛을 내는 비빔밥처럼,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과 멕시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가 화합·단결·공존의 가치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마련한 행사라고 소개했다.

이주일 주멕시코 한국대사는 축사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 존중과 이해,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공존할 때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며 “이번 행사가 양국 공동체를 더욱 가깝게 연결하고, 평화를 향한 우리의 약속을 함께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연합뉴스

필리핀 건물 공사중 붕괴…1명 숨져

필리핀에서 건설 중이던 9층 빌딩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작업자 등 적어도 2명이 매몰돼 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25일(현지시간) 필리핀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30분께 필리핀 북부 루손섬 팜팡가주 앙헬레스시의 한 9층 빌딩 공사장이 붕괴했다.

공사장의 무너진 건물 잔해가 맞닿은 한 호텔을 덮치면서 숙박 중이던 말레이시아 관광객 A(65)씨가 숨졌다. 또 대부분 1층에서 잠을 자던 건설 노동자 24명이 탈출했지만, 나머지 최소 2명이 실종 상태라고 현지 소방 당국이 밝혔다.

2024년 착공한 붕괴 건물은 애초 설계상 9층 높이의 호텔·콘도미니엄 복합 빌딩이었지만, 이후 10층에 수영장이 추가돼 공사 중이었다. /연합뉴스

## ‘중유인우주선’ 선저우 23호 발사 성공…텐궁 우주정거장 도킹

중국의 유인우주선 선저우 23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텐궁 우주정거장에 도킹했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중국 유인우주공정관공실(CMSA)과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선저우 23호는 전날 오후 11시8분(현지시간) 중국 북서부 간쑤성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됐으며, 20분 뒤 우

주선과 로켓이 성공적으로 분리돼 예정 궤도에 진입했다.

이후 자정을 넘긴 25일 오전 2시45분 선저우 23호는 텐궁 우주정거장의 핵심 모듈인 텐허 도킹에 성공했고, 오전 5시13분 기준에 체류 중인 선저우 21호 우주비행사 3명과 만나 궤도상에서 교대 임무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선저우 23호는 우주정거장 활용·발전과 관련한 7번째 유인 비행 임무이자 중국 유인 우주 프로젝트 전체로는 40번째다.

이번 임무에는 지휘관 주양주를 비롯해 장지위안, 리자잉 등 우주비행사 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CCTV는 전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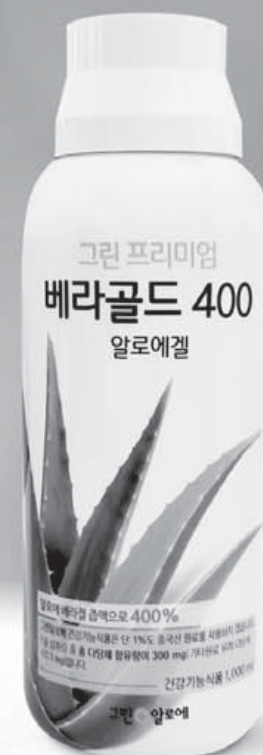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